

호전광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

얼마전 미국이 우리의 면전에서 일본, 남조선피괴들과 미사일경보훈련이라는 것을 벌였다. 이시합들이 동원된 훈련은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문제는 미국이 우리의 로켓을 탐지, 추적하는 능력을 제고하는데 훈련의 기본목적이 있다는 것을 내놓고 공개하고 심지어 가상목표를 띄워놓고 공격하는 놀음을 벌이면서 평가를 부린 것이다. 그저 스키치나 보편성 없는 매우 심상치 않은 군사적 용적임이다.

지금 미국은 이런 훈련이 일본, 남조선피괴들과 미사일경보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훈련이 우리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자까지 막는 시점에서 진행되었다는 것과 내내 미사일 경보훈련이라는 것을 애써 강조하면서 그 내용을 도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 그야말로 첩보화되고 비례하기 짝이 없다. 미국이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유식한 말장난으로 저들의 모험적인 군사적 용적임을 합리화하려 하지만 그대수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왜 굳이 도대체 조선반도정세를 어디로 끌고갈지 하는가. 미국의 평가가 아니라 전쟁을 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대륙국 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 인민에게 정면으로 도전해 나가고 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훈련에 일본과 남조선들을 끌어들이는 건 목적이 있다.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것은 미국의 변질 없는 야망이며 전략이다. 미국은 이것을 추종세력들과의 군사적 동맹화를 통해 실현해 보려 하고 있다. 특히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에 온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나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여 추종세력들을 내놓아 집단적인 군사적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집어삼키자는 것이다. 미국이 미사일경보훈련에 일본과 남조선들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전략적 위기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 이번엔 미국이 일본, 남조선피괴들과 결탁한 훈련을 3각군사동맹추진을 위한 한 걸음이며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더 흔한 어지가 없다. 미국도 이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정세적화의 주범, 평화파괴자로서의 미국의 정세는 날 날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미국은 아직까지도 저들이 벌인 훈련이 그 누구의 「미사일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통할 수 없는 꾀이다.

미국은 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하고 자중, 자숙하여야 한다

국제 사회가 경고를 울리고 있다. 미국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군정정치연구협회 인더넷홈페이지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무진막강한 자위적핵억제력을 보유한 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한사코 외면하면서 어리석게 놀아넘는다는 해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절망속에 빠져들게 되리라는 것을 명시하고 자중, 자숙해야 한다고, 도발자, 침략자들에게 차폐물은 오직 쓰디쓴 참예와 멸망뿐이라고 경고하였다.

인디안신문 《월즈 미러》는 핵선제타격권이 결코 미국의 특권이 아니라 조선의 영속한 선천은 세계를 진상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은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대항할 준비가 되어있다.

선군의 위력으로 강대한 조선은 미국은 절대로 진드림수 없다.

만약 미국이 저들의 《월즈 미러》에 대한 패배당중에서 빠져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것은 관행성에 아메리카계국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선군으로 강대한 승리를 펼쳐가는 조선의 모습은 오직 자위의 용두에 나라와 민족의 안전이 있고 평화가 있음을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이 조선에 대한 남아메리카적대시정책, 시대착오적인 핵위협에 계속 매여달릴수록 조선의 핵억제력은 질적으로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조선에 대한 남아메리카적대시정책, 시대착오적인 핵위협에 계속 매여달릴수록 조선의 핵억제력은 질적으로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조선에 대한 남아메리카적대시정책, 시대착오적인 핵위협에 계속 매여달릴수록 조선의 핵억제력은 질적으로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통일 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 호소문 《조선인민의 강대한 힘과 드높은 통일 의지를 총동원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 올리자》를 지지하여 1월 23일 도이칠란드연방에서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 호소문 《조선인민의 강대한 힘과 드높은 통일 의지를 총동원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 올리자》를 지지하여 1월 23일 도이칠란드연방에서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 호소문 《조선인민의 강대한 힘과 드높은 통일 의지를 총동원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 올리자》를 지지하여 1월 23일 도이칠란드연방에서 성명을 발표하였다.

팔레스티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

파키스탄수상 모함마드 나와드 샤리프가 1월 31일 팔레스티나대통령 마흐무드 압둘 마흐디를 지지하며 팔레스티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국제공동체로 호소하였다.

파키스탄수상 모함마드 나와드 샤리프가 1월 31일 팔레스티나대통령 마흐무드 압둘 마흐디를 지지하며 팔레스티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국제공동체로 호소하였다.

일본수역에서 미군순양함 좌초

일본 가나가와현의 요코스카 시 앞바다에서 1월 31일 미해군의 이지스순양함 《엔리얼》호가 좌초되었다.

일본 가나가와현의 요코스카 시 앞바다에서 1월 31일 미해군의 이지스순양함 《엔리얼》호가 좌초되었다.

마약반대투쟁을 강화할 링장 강조

필리핀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제가 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마약반대투쟁을 더욱 강화할 링장을 강조했다.

필리핀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제가 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마약반대투쟁을 더욱 강화할 링장을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유래인정 촉탁확장책동

이스라엘이 유래인정 촉탁확장책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유래인정 촉탁확장책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지 말 것을 미국에 경고

이란의무장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1월 31일 프랑스의무장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지 말 것을 미국에 경고하였다.

이란의무장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1월 31일 프랑스의무장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지 말 것을 미국에 경고하였다.

미국에서 련이든 로로 위협사건으로 소동

미국의 10개 주에서 1월 31일 공공기관에 대한 테러위협사건이 발생하여 일대 혼란이 조성되었다.

미국의 10개 주에서 1월 31일 공공기관에 대한 테러위협사건이 발생하여 일대 혼란이 조성되었다.

앞날이 없는 자본주의 사회

1월 11일에 전국적인 살인정평군가격이 그 전월 대비 0.5% 올랐다.

1월 27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오일렌드에서부터 살인정평군가격이 그 전월 대비 11.4% 인상되었다.

이 글에서는 살인정평군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1월 27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오일렌드에서부터 살인정평군가격이 그 전월 대비 11.4% 인상되었다.

이 글에서는 살인정평군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범진반대투쟁 1월 17일과 23일 2건의 입수명령이 적발되었다.

범진반대투쟁 1월 17일과 23일 2건의 입수명령이 적발되었다.

수감자 줄대

오스트랄리아에서 수감자가 줄어가고 있다.

오스트랄리아에서 수감자가 줄어가고 있다.

미국은 수리아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정화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알레포에 공기를 불고 있던 반군들에게서 격렬한 저항을 겪고 있다.

정화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알레포에 공기를 불고 있던 반군들에게서 격렬한 저항을 겪고 있다.

오늘의 세계

얼마전 까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수리아정부와 반정부세력 사이에서 평화회담이 진행되었다.

얼마전 까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수리아정부와 반정부세력 사이에서 평화회담이 진행되었다.